

세계 방산업체 소개 — 프랑스의 GIAT社

● 姜 西 益 / 국방과학연구소

1990년 6월 1일부터 GIAT社は GIAT 인더스트리 산하의 공공기업으로 전환된다. GIAT(Groupement Industriel des Armements Terrestres)는 공공의 자금지원을 받는 합법적인 독립기업 형태를 갖추기 위해 1971년이래 유지해온 국가병기창의 위치를 포기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업을 출범시키는데 소요된 정부투자액은 1천4백10억원(10억 프랑) 이었다.

GIAT 인더스트리社の Pierre Chiquet 회장은 『신제품 발주를 이익만 추구하고 관료주의에 잠혀있는 업체에 위임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의 전형적인 예가 GIAT사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장비인 다연장 로켓시스템(MLRS)이다.

주계약자인 Aerospatiale사는 이 시스템을 국제협력사업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사실 정부는 신제품을 GIAT보다 활기있고 역동(力動)적인 항공회사에 맡기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GIAT가 당면한 두번째 문제가 있다.

그동안 GIAT의 경우 근로자의 인원수가 법령으로 통제되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평균 국가임금이 적용되었다. 어떤 봉급도 능력에 따른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적용하에서는 GIAT가 어떤 주도권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왜 새로운 모든 프로젝트가 무시되어

왔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1984년에 1조4천억원을 상회하였던 총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9천6백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가장 큰 감소원인은 수출부진에 따른 것으로, 수출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4년의 37%에서 1989년에는 10%로 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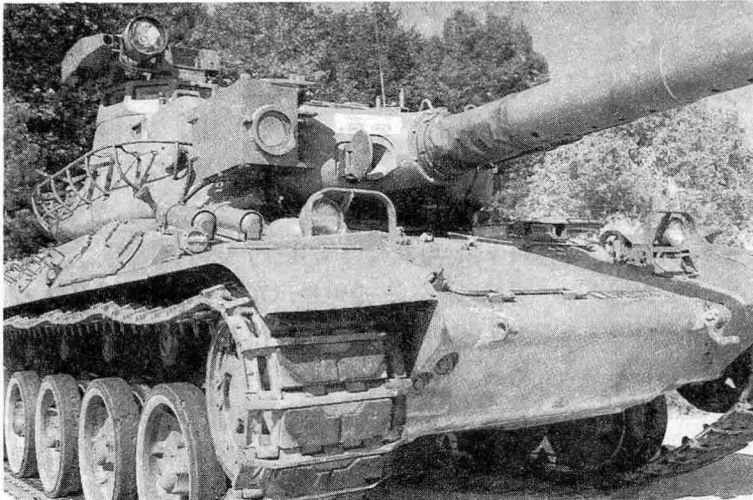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hiquet 회장은 GIAT의 미래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이는 수주금액이 1조5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수출물량은 약 2천억원에 불과함).

또한 Chiquet 회장은 『만약 법령이 2년만 더 일찍 바뀌었다면, 재정상황도 안정되고, 근로자들은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로 개조작업에 참여할수 있는 기반위에서 일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러 필수적인 조치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취해졌다. 그중 첫번째가 2백80억원에서 5백60억원으로 2배나 증액되어 업체지원 연구를 활성화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우수연구센터의 설립, 다른 프랑스 무기제조업체와의 밀접한 협조, 협력에 바탕을 둔 강력한 구매정책, 관리방법 개선 등 다양한 단계를 취하고 있다.

총매출액은 공작기계의 다양화와 군비증강으로부터 파생될지 모를 이익에 관계없이 앞으로 5년 동안 안정될 것이다. 수출목표는 지금부터 1995년 사이에 총매출액의 30%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된 분야는 5.56밀리 탄약에서부터 전차용 탄약과 155밀리 포탄에 이르는 각종 탄약이 될 것이다.

GIAT의 두번째로 큰 사업인 장갑차량 분야에서는 어느 차량이 장래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상당한 가격인하 상태에서도 얻을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AMX 10RC 같은 제품이 빛을 보게 되었다. AMX



1984년에 1조4천억원을 상회하였던 총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9천6백 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GIAT의 미래는 프랑스 육군을 위해 개발 중인 새로운 Leclerc 전차와 해외에 성공적으로 판매된 AMX 30의 현대화사업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사진은 차드(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운용 중인 AMX10RC

10RC는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아직도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차 성능개량은 관심을 끄는 일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8백대의 AMX30이 현대화되기 때문이다.

『주로 사우디에서 취해진 현대화작업은 30년 전 사고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무역에 바탕을 두지 않고 매우 어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다. 오늘날 여러분은 고객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한한 모든일을 해야 한다.』고 Chiquet는 믿고 있다.

포병과 무기를 취급하는 제3사업부는 사업감축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더 큰 어려움에 예상된다(현재상태에서 약 1천1백억원). 어떤 일이 발생하든 GIAT의 장래는 Leclerc 전차의 미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Chiquet 회장은 『Leclerc 전차의 포기는 회사의 커다란 비극일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유럽작전 영역에서 운용할수 있도록 설계된 현 상태에서 경제적 운용을 위해 특성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단가를 안정시키고, 장래의 단가상승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든 행동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지식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통적인 방법은 주문이 매년 확정되어야 하며, 최종 목표가 임의의 확신으로 세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GIAT 인더스트리의 회장이 우려하는 두 번째 것은 설계개념작업이 개념작업에 대해 알아야 하는 사람들(연구관리자, 바이어,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이 결합하여 일찍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부(관리부문)의 팀워크는 상당한 단가감축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나가고 있다.

또한 Chiquet 회장은 『Leclerc이 첫번째 신세대 전차이며, 무기감축이 시작되기 전 출범한 마지막 전차이므로 훌륭한 수출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프랑스는 지상무기분야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재구축되는 유럽국가라고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는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모듈장갑차량 (VBM : Vehicle Blinde Modulaire)과 관련된 「Renault VI」와의 경쟁에서 GIAT는 주계약자로 바로 지정되었다. Chiquet 회장에게 VBM사업은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러한 사업일 경우 자국내에 군수지원능력을 갖춘 해외업체와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

<I. D. R 90/6>